

## 감전 사고 후 발생한 발작성 심방세동 1례

포천중문의과대학 분당차병원 순환기내과

박지한 · 윤상필 · 차성태 · 김주환 · 김인재 · 임상욱 · 차동훈 · \*성정훈

**서론 :** 감전 사고가 심혈관계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심근경색, 좌심실부전, 심장파열과 부정맥 등이 알려져 있으며 조기심실박동, 심실빈맥, 심실세동, 심방빈맥, 심방세동, 각차단이나 완전방실차단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. 감전사고 이후의 부정맥의 발생 빈도는 10% - 36%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이 중 심방세동의 빈도는 드물다. 저자들은 감전 사고로 인한 발작성 심방세동을 보인 환자 1례를 경험하였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. **중례 :** 45세 남자 환자가 내원 1시간 전 TV를 고치던 중 전선의 피복을 입으로 물어서 벗기다가 발생한 수초간의 의식 소실 및 구강과 왼손 첫째 손가락 주위의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였다. 환자는 심전도를 포함한 이전의 신체검진 상 특별한 과거력이 없었다. 내원 당시 경미한 흉부 불편감을 호소하였고 이학적 검사에서 의식은 명료하였으나, 감전 전류의 입구로 보이는 화상이 입술주위에, 출구로 보이는 화상이 왼손 첫째 손가락 주위로 관찰되었다. 내원시 혈압은 130/80 mmHg, 맥박은 분당 약 110회로 불규칙한 리듬이었고 백혈구 12000 / $\mu$ l, 혈청 칼륨 2.9 mEq/L, CK 213 U/L 로 증가되어 있었으나 CK-MB 3.24 ng/mL, Troponin-T <0.010 ng/mL 로 정상범위 내였다. 표준 12 유도 심전도 상 분당 110회의 빠른 심실 반응을 보이는 심방세동의 소견을 보였다(Fig.1). 심박수 조절을 위해 디곡신 0.25 mg을 정주하였고 이 후 흉부 불편감이 소실되고 심박수가 분당 약 90회 정도로 감소하였지만 정상 동율동으로 회복되지는 않았다. 심초음파 검사에서 다른 이상소견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환자는 화상 상처 부위의 동통 이외에 특별히 호소하는 증상 없이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 받았으며 사고 21시간 후 정상 동율동을 회복하였고(Fig.2) 이후 특별한 약물투여 없는 상태로 퇴원하였다.

Fig 1.



Fig 2.



## 좌심방 점액종 수술 후 발생한 동기능부전 증후군 및 심방 빈맥 1례

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순환기내과학교실

\*이태근 · 김준 · 최재훈 · 이한철 · 김준홍 · 전국진 · 홍택중 · 신영우

**서론 :** 좌심방 점액종은 가장 흔한 심장의 원발성 종양으로 수술적 제거가 치료의 최우선이다. 점액종의 외과적 절제 후 심방조동, 동기능부전 증후군이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다. 저자들은 점액종 제거 후 발생한 동기능부전 증후군 및 심방빈맥 환자를 보고하는 바이다. **중례 :** 63세 여자가 내원 2 주전부터 발생한 NYHA III 호흡곤란으로 내원하였다. 심초음파에서 좌심방에 5.5 X 8.0 cm의 종괴가 발견되었다. 좌심방 및 우심방절개를 통한 점액종 제거를 시행한 다음날 어지럼증을 동반한 접합부율동이 관찰되었으며, 간헐적인 비전형적 형태의 심방조동이 관찰되었다. 환자는 2 주 후 영구형심박동기(DDDR)를 이식받았으며, 서맥증상은 더이상 발생하지 않았다. 항부정맥제를 투여함에도 불구하고 발작성 심방조동이 관찰되어서 점액종 수술 16 개월 후 환자는 전기생리학검사 및 전극도자절제술을 시행받았다. 신속심방조율로 심방빈맥이 유발되었으며, 우심방에서의 activation time이 빈맥주기의 50% 이상을 차지하여 우심방빈맥으로 판단하였다. 우심방후측벽에서 long duration의 fractionated potential이 관찰되었으며, 이 부위에서 고주파에너지를 투여한 후 빈맥은 종료되었다. 또한 삼첨판륜하대정맥 협부에도 도자절제술을 시행하여 양방향의 전도차단을 확인하였다. 이후 isoproterenol 정주 후에도 신속심방조율로 심방빈맥/조동은 더이상 유발되지 않았다. 시술 3개월간 항부정맥제 투여없이 환자는 빈맥의 재발없이 경과 관찰 중이다. **결론 :** 좌심방점액종의 수술적 제거 이후 발생한 동기능부전 및 우심방절개부위 주위로 회귀하는 거대회귀빈맥에 대한 성공적인 도자절제술을 시행한 증례를 보고하는 바이다.